

# 응급실이 '응급 상황'...한계치 도달

의정갈등 장기화에 상급병원 휘청  
응급실 의료진 극심한 피로 호소  
조대병원, 타 진료과 지원 운영  
전대병원, 체력·정신적 한계 달해  
타지역 대형병원 응급실 운영 중단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인근에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실 인력은 물론 배후 진료과도 모두 무너졌다. 이제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도달한 듯하다.”  
광주지역 한 응급의학과 교수가 지난 1일 개인 SNS에 남긴 글이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87일째 되자, 광주·전남 상급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도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필수 의료 핵심인 응급실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진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하면서, 병원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조선대학교병원은 “4일부터 매주 수요일 타 진료과 의료진(전문)의 지원을 받아 응급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조선대병원 응급실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이 광주·전남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등에 대응하고 있다.  
6개월 넘도록 전공의 없이 8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하루도 쉬지 못하고, 교대로 주·야간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측은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월부터 매주 수요일 타 진료과 전문의들의 응급실 근무 지원을 받는다. 대체 투입한 전문의가 응급의학과에 근무하는 동안 기존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는 주 1회 휴식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응급실 지원 전문의가 충분하지 않으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부라도 순환시키면서 휴무를 보장할 방침이다.

조선대병원은 추가로 병동을 폐쇄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20개 병동에서 6개 병동을 줄였지만, 입원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2개 병동을 추가로 폐쇄해 타 병동과 통합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물리적으로 가동병동을 줄여 의료진 부담을 덜어주려는 고육지책이다.  
조선대병원은 “올해 하반기 전공의 추가채용에서도 지원자가 1명에 그쳐 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체 인력으로 병원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전했다.  
전남대병원 응급실은 그나마 아직까지는 비상조치나 대체 의료진 투입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지만, 일부 의료진이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어 비상사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전남대병원 응급실에는 전문의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명씩 돌아가며 당직 근무를 맡고 있다.

광주지역 상급병원의 한 의대교수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도 체력·정신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응급실 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도 의료사고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편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 중주병원 등 타 지역 대형병원들은 야간이나 주말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고, 순천향대 천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여의도성모병원도 응급실 운영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 중 서울의료원을 제외한 6곳에서는 일부 환자의 진료가 제한되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반복되는 쌀값 폭락은 정부 정책 한계...안정화 대책 마련하라”

김영록 지사, 정부에 해결방안 요청  
재배면적 감축·쌀수급 통계 개선 등

전남도가 현 정권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급락하고 있는 쌀값 하락 문제 해결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쌀 수급 예측 통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요청했다.  
쌀 한 가마(80kg) 가격은 지난달 25일 기준 17만 6628원으로 지난 15일 가격(17만 7440원)보다 1112원(0.6%) 떨어진 상태다.  
지난 2022년 9월 25일(15만 5016원) 이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정부가 지난달 25일 내놓은 ‘쌀값 안정화 방안’도 전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모양새다.

당시,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23년산 쌀 5만톤을 사들이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공 비축용 쌀 40만톤을 수매한 것 외에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6월까지 5만5천 15만톤을 수매하는 등 쌀값 하락에 따른 시장 안정 대책을 잇따라 내놓긴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 때문에 쌀값을 보장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가 쌀 한 가마당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쌀값을 떠받치겠다는 ‘시그널’을 보이지 않으면서 쌀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는 형편이다.  
신정훈 국회의원도 예전에 비해 통계·기상 관측 등의 데이터 관리가 충분히 가능해져 정부가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수급 관리가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게 해놓고 책임을 농민들과 소비자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같은 점을 들어 “재고 대란 속에 쌀값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쌀 수급 정책의 기본자료인 쌀 관측 통계 오류와 정부의 소극적 시장격리 조치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수확기 이전 ▲2023년산 쌀 재고물량을 조기에 시장격리할 것과 ▲2024년산 쌀 공공비축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시장격리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지사는 또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쌀 수급 예측 통계 현실적 개선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축 ▲수입쌀 전량 사료화 전환 ▲국가 차원의 쌀 소비문화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쌀값 폭락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쌀값 안정화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알립니다 광주일보 역사신문 만들기 NIE체험프로그램 참가 학교 모집

광주일보가 신문에 대한 관심을 갖게하고 창의적 논리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 진행하는 역사신문만들기 NIE공모전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할 광주·전라지역 초·중학교를 다음과 같이 공모 하오니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모집대상 및 기간  
○모집대상: 광주·전남 지역 초등학교(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기간(일시): 2024년 9월 3일~2024년 9월 13일
- 2.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주요사업내용  
- 신문과의 소통, 기자정신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 역사신문·학교신문 만들기 등 체험학습  
- 역사신문 제작을 위한 역할분담 및 기획, 취재, 제작과정 교육  
- 역사신문 만들기 NIE공모전 참가  
○지역신문협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 신문과의 소통, 기자정신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각 1회)  
- 역사신문·학교신문 만들기 등 체험학습(각 2회)  
- 선정된 4개학교 신문사 방문 현장체험 학습  
<역사신문 제작을 위한 역할분담 및 기획, 취재, 제작과정 교육(3회)>
- 3. 선정학교 지원 내역  
- 신문과의 소통, 기자정신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강사 지원  
- 학교별 찾아가는 교육실습 및 현장체험
- 4. 담당자 연락처  
- 광주일보사 제2사회부 김대성 부장 (062-220-0680, 010-7609-4937)

光州日報社

## 전국 ‘평화의 소녀상’ 실태조사...“대략 150여 개”

여성가족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평화의 소녀상’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실태 조사 범위는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설치한 소녀상과 함께 민간단체가 세운 것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소녀상 훼손을 방지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처벌하는 취지의 법안이 속속 발의됨에 따라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최근 방송이나 출판물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을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지난달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할 경우 기존의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여가부는 이번 주 내에 현황 파악이 마무리되면 관련 자료를 작성한 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의견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소녀상 현황 파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확하지 않지만,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은 대략 150여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전남국립의대 설립 ‘골든타임’

▶1면에서 계속

전남도는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 국립 의대 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하기 위해 용역기관을 선정할 뒤 제 1·2차 공청회를 거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용역기관은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방식 기본안’으로 ‘의대 선정 후 대학병원 2개 신설’, ‘의대 및 대학병원 동일지역 신설’ 등 2가지를 마

련해 9월 3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만간 설립 방식을 최종 결정할 뒤 사전심사위원회, 평가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영구 전남도 인재육성교육장관은 “정부가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약속한 지 이미 철쭉의 골든타임으로 이번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공모를 통해 단순히 대학을 추천하는 것을 넘어 전체 도민의 건강권과 전남 지역의 의료체계 완결성을 확보할 ‘최대공약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 풍수·사주

##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9. 2(월)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푸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8. 26(월) 오후 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파 증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자본감소(임의상소각)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공고

유원회사 가동전력(이하 "당사")은 2024년 09월 02일 개최된 임시사원총회에서 당사 자본금의 총액 금 225,000,000원을 금157,000,000원으로 감소하고(감소되는 자본금의액: 금68,000,000원) 총차1회당 금 10,000원의 총차지분 6,800회에 대하여 회담하는 사유으로부터 1회당 금10,000원에 유상당도만이 이를 소각하는 방식(임의상소)으로 총차좌상할 22,500회에서 15,700회로 감소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의거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월 03일  
유원회사 가동전력  
전남도 영암군 영암읍 회의촌길22  
대표이사 김미순

**명당 전원주택 매매**  
전남 담양군 수북면 병풍산 자락  
경치 최고, 공기청정지역, 평지

대지 704py 1층 주택 60py(최고급주택)  
카페 및 부속건물 20py (덧발 100py,  
트랙터, 비탈하우스 30py, 화장실 3개)  
투자 및 숙박, 요양시설 용지 최고.

**매매가 24억(양자 6억 5천)**  
인수가 17억 5천

**010-3646-8700**